

휴일도 잇은 민주, 예산안·입법 집중 점검

국정원 개혁안·철도 민영화 방지·쌀 목표가격 인상 논의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예산·입법 점검회의를 열어 사실상 오는 30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예산안 및 입법 심사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각 상임위 원장과 간사 등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 간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민주당 측 개혁안 관철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공공부본 민영화 방지 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SOS 어린이 마을'에 방문. 어린이들과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 주요 예산 및 법안 처리 방향 등도 협의했다.

◇국정원 개혁=김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4차 회담에서 국정원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정치개입을 방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내에 우선 처리할 최소한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적시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시간을 끌며 여야지도부 간의 합의 사항까지 외면한다면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에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여야 4차회담 합의 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해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며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비정상 상태의 국정원을 정상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돌리자는 국민과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명령인 특검수용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산·입법=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심사 제1원칙은

민생우선이다"며 "현재 새마을 예산 등 '중박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힘있게 노력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로당 난방비 예산 그리고 점토학교와 냉동학교 방지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지원 예산 등을 민주당 요구로 관철해 냈다"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국가 국고보조를 인상과 학교 급식비 확대 그리고 학교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보의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생 주거 법안, 남양유업 방지법 등 을지키기 법안,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확대 법안 그리고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벌증세 법안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본 민영화=김 대표는 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 "공공부본 개혁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의 민영화, 의료의 영리화 추진도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료의 민영화, 영리화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철도노조파업 17일째인 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를 방문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노조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철도공방'

최경환 "민주, 철밥통 철도노조 두둔하나"
김한길 "사태악화, 박근혜정부 무능 증거"
문재인 "민영화 아니라면 입법 왜 안하나"

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철도와 업과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 점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철도) 민영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며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 공사화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철도철도를 공사화하는 등 개혁을 추진한 원조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면서 "철밥통 철도노조를 두둔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이면 불법 파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무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코레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두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를 돌변해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영화 방지 입법' 주장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법화한 예가 없다"면서 "법에 넣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타!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첫 아동양육시설 방문

운동화·가방 등 선물... 아이들과 함께 노래·율동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아동양육시설인 '서울 SOS 어린이마을'을 찾아 아동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동화와 가방 등을 선물했다.

박 대통령의 아동 시설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성탄절에는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시설 아동을 격려하는 한편 아동복지 최일선 종사자와 대화를 나누며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이곳을 찾은 박 대통령은 "오늘 어린이 여러분 산타

가 돼서 선물도 갖고 왔고, 또 성탄절 기쁨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 찾아 왔다"고 말했다.

생일을 맞은 아동을 위해 케이크를 가져온 박 대통령은 축하 노래를 부르고 축복도 껴주며,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와 율동, 놀이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요즘도 그런 놀이 하는지 모르지만 고무줄 뛰여넘기, 공기놀이, 소꿉장난도 많이 했다"며 "그런 놀이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도 그런 재밌는 놀이 하면서 즐겁게 씩씩하게 생활해야 마음도 밝아지고 공부도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울 SOS 어린이마을은 독립된 공간에서 1명의 'SOS어머니'와 6~8명의 아동이 일반 가정처럼 생활하는 시설이다. SOS어머니는 결혼하지 않고 55세까지 친어머니처럼 아동과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이 시설은 또 소속 아동에 대한 양육 외에도 저소득 밀집지역 아이를 위해 '지역아동복지센터', '상담심리치료센터', 'SOS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전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호아동 정서적 치유, 학교폭력 피해아동 위탁 심리치료, 과잉행동 증후군(ADHD) 등을 앓는 외부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을 활성화해 지난 2010년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송광운 북구청장 '올해의 지방자치CEO' 선정

송광운(사진) 광주시 북구청장이 25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올해 동안 지역발전과 자치행정태양탄원 업적을 이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1명,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송 청장은 어려운 구정 살림 속에서도 우수한 수영장·꿈나무 복지관 등 건강·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민선 4·5기 등 재임기간 중 각종 정부기관 주관 평가·공모에서 417회 걸쳐 186억원의 상



사범비를 확보하는 등 지혜로운 리더십이 돋보인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국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2011년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5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북구를 청렴 행정기관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주) 오 천 경 매
직통, 010-3605-5000
대표, 최 선 규 드림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오직 경매만 하실 분
- ▶ 현, 5명 근무 4명 모집
- ▶ 책상/컴퓨터등 집기 제공
- ▶ 사업자 가능/여직원 보조
- ▶ 공동투자, 권리분석등 혜택
- ▶ 사용료, 1200만원(1년)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낙찰 사례 실전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주 1회/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경매에 투자 하실 분

- ▶ 투자금 1억원 이상
- ▶ 지분/공동투자 방식
- ▶ 제1순위 근저당 방식
-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 ▶ 수익률, 년 15% 이상
- ▶ 투자기간, 1년정도

“급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매매가, 1억5500만원(시세 2억)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임대 중
대출 7500만원 가능)
매매가, 1억7500만원(시세 2억5천만원)